

# 산림기술 소식 N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Vol. 26



2025년 7+8월호

한국산림기술인회 소식지





# 산림기술 소식

발행일 2025년 9월 1일 발행 한국산림기술인회  
 기획·편집·디자인 한국산림기술인회 일반사업본부 대외협력단  
[www.tkfea.or.kr](http://www.tkfea.or.kr) (한국산림기술인회)  
[www.tkfeaeu.com](http://www.tkfeaeu.com)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대표전화 1522-5936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1533-5160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1~3번 교육 문의 / 4번 회원 문의 / 5번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층

## 산림 정보 특특!

### 읽을거리 및 정보 제공

- 01 2025년도 전국 산림안정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연장
- 02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9·10월 교육과정
- 04 하반기 관리감독자 교육 및 교육장 이전 안내
- 06 정회원 대상 여기어때 제휴 휴양 혜택 안내
- 10 산림사업체 등록기준 안내
- 12 (한국원목생산협회) 수해 복구 지원 활동
- 15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예방수칙 안내

## 산림 이야기를 담다

### 산림 소식 및 전문가 기고

- 16 (시리즈) 새로운 숲을 만나다
- 22 (정회원 기고) "자존심 대결"

## 기술인회 +

### 우리 회 소식 및 공지

- 26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 30 한국산림기술인회 7·8월 보도자료
- 32 사진으로 보는 한국산림기술인회 뉴스
- 34 정회원 무료 법률상담 오픈 채팅방
- 35 (한국임업진흥원) 인공지능 아이디어 공모전
- 36 채용정보 게시판 및 산림소식 모집 안내



◀ 소식지 바로보기

회원 여러분의 제안과 리뷰를 기다립니다. [members@tkfea.or.kr](mailto:members@tkfea.or.kr)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을 선정해 소개해 드립니다.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한국산림기술인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소식지에 게재된 글,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는 금합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



블로그 이웃맺기



밴드 가입하기



유튜브 구독하기

2025년도

# 전국 산림안전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접수기간 연장

“내가 해봤습니! 산림안전 보이그”

2025년 9월 26일 **금요일**까지



## 참가자격

산림기술자, 산림관련 전·현직 공무원,  
산림관련 학과 대학생 누구나

## 공모일정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 예정

## 응모방법

이메일 접수 [kongmo@tkfea.or.kr](mailto:kongmo@tkfea.or.kr)



### 접속경로

1. 홈페이지([tkfea.or.kr](http://tkfea.or.kr)) 접속
2. 상단 메뉴 '열린마당' 공모 게시판
3.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 및 신청

[tkfea.or.kr](http://tkfea.or.kr)

※ QR 코드 촬영 시 공모 게시판으로 바로 이동됩니다.

## 공모주제

산림안전 경험 및 실천 우수사례

- 산림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과 대응 방법 등
- 산림 안전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의 현장 적용 사례 등

## 시상내역

구분	인원	시상금	시상
최우수상	1명	50만원	산림청장상
우수상	2명	각 30만원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장상
장려상	3명	각 20만원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장상
계	6명	총 170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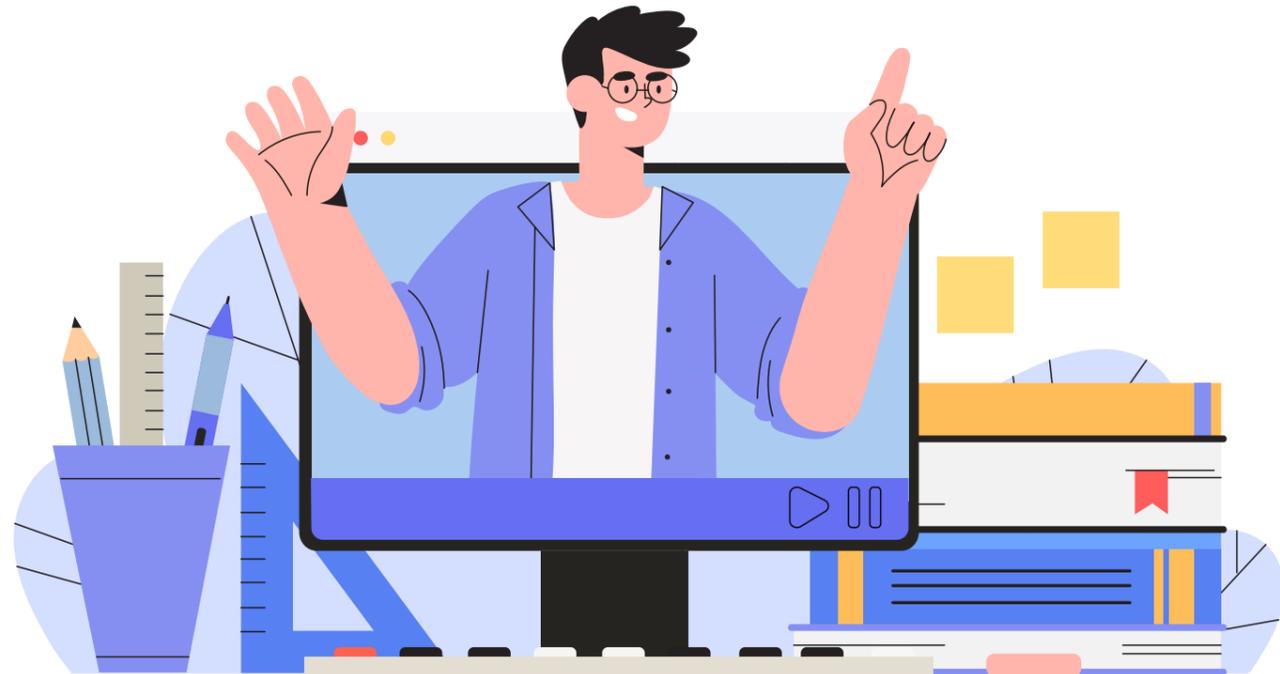


모든 교육과정은  
1일 대면 + 4일 비대면 혼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 9월·10월 교육과정 안내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의 9·10월 법정보수교육 교육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교육 신청은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홈페이지  
개인회원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 교육 신청 인원이 최소인원(20명)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 교육 일정은 교육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월 교육과정	
9월 8일(월) ~ 9월 12일(금)	9월 8일(월) ~ 9월 12일(금)
제4기 경영+공학 통합과정	제2기 공학기술과정

10월 교육과정	
10월 20일(월) ~ 10월 24일(금)	10월 27일(월) ~ 10월 31일(금)
제3기 경영기술과정	제3기 녹지조경과정

### 제4기 경영+공학 통합과정(40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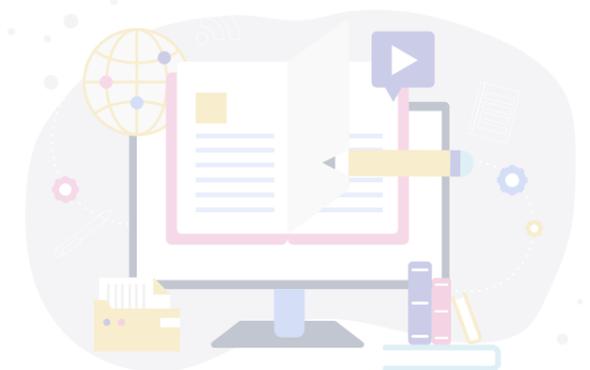
이수대상 :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등 2개 이상 자격 소지 및 근무 기술자(매 3년마다 이수)  
※ 경영 필수(20시간), 공학 필수(20시간) 분할 신청 가능

### 제3기 경영기술 전문과정(35시간)

이수대상 : 산림경영기술자 단일 자격 소지 및 근무 기술자(매 3년마다 이수)  
※ 통합(35시간), 필수(20시간), 선택(15시간) 분할 신청 가능

### 제4기 녹지조경 전문과정(35시간)

이수대상 : 녹지조경기술자 단일 자격 소지 및 근무 기술자(매 3년마다 이수)  
※ 통합(35시간), 필수(20시간), 선택(15시간) 분할 신청 가능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2025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교육**

2025년 9월 15일 ~ 16일(총 2일 / 1일간 진행)



- 과정명** 2025년도 하반기 관리감독자 교육(16시간 / 8시간)
- 교육방식** 집체 16시간 / 집체 8시간 + 실시간 비대면 8시간 / 집체 8시간 / 실시간 비대면 8시간  
 ※ 우편교육 방식과 혼합으로 16시간 전체 이수 희망 시 해당 교육 8시간, 우편교육 8시간 등 분할 신청
- 교육장소** 집체강의 : 대전광역시 둔산북로121, 아너스빌 2층  
 비 대 면 : 교육원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를 통한 zoom접속
- 교육비** 집체강의 8시간 + 실시간 비대면 8시간(160,000원)  
 실시간 비대면 8시간(80,000원)
- 신청기간** 수시모집 ※ 선착순 모집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교육원 홈페이지 → 개인 회원 로그인 → 교육 신청
- 문의** 1533-5160 (2번, 안전보건교육)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육장 이전 안내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이  
 새로운 교육장으로 이전했습니다!

더 나은 교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육장 방문 시 착오 없으시도록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층(한국산림기술인회)

## 이전 위치도



정부청사역  
대전1호선

시청역  
대전1호선





#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대상 여가·휴양 복지 제휴 혜택 안내



우리회는 정회원 여러분의 여가·휴양 복지를 지원하고자, 여행·숙박 플랫폼인 '여기어때'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번 제휴를 통해 회원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숙박·여행 서비스를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편리한 예약 시스템을 통해 개인 및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에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여행 및 출장 시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 혜택 #1

#### Biz Elite 등급 멤버십 할인가 적용 숙소

일반 회원보다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어요 (평균 13% 할인)



### 혜택 #2

#### 비즈니스 회원 한정 시크릿 쿠폰백 제공

매월 발급되는 전용 쿠폰으로 숙소는 물론 전국 핫플레이스 레저·티켓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내정보] → [혜택받기] → 다운로드 가능



### 혜택 #3

#### 무조건, 무제한 3% 할인 쿠폰 제공

국내, 해외 숙소 예약할 때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3% 할인 쿠폰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내정보] → 다운로드 가능

"포인트 적립, 중복 할인, 기념별 프로모션 등 다양한 이벤트는 오직 비즈니스 회원 대상으로 진행돼요"



### 01. 여기어때 어플 설치 및 접속 / 등록 이메일 발송 임시비밀번호 확인

여기어때. 비즈니스

#### 비즈니스 회원 로그인 안내

여기어때비즈니스의 구성원으로 초대되었어요.

홍길동님의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가 생성되었습니다. 아래 정보를 사용해 로그인한 후, 비즈니스 서비스 이용을 시작해주세요.

#### 안내 사항

- 보안을 위해 로그인 후 반드시 새 비밀번호로 변경해주세요.
- 로그인은 가입 대기 기간(~2026.02.03)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 대기 기간이 만료되면 최대 2일 후 관리자가 회원을 재등록하여 새로운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시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이용 약관에 동의해야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이메일 test@naver.com  
 임시 비밀번호 QG6R9Z0a

한국산림기술인회에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로 임시 비밀번호가 발송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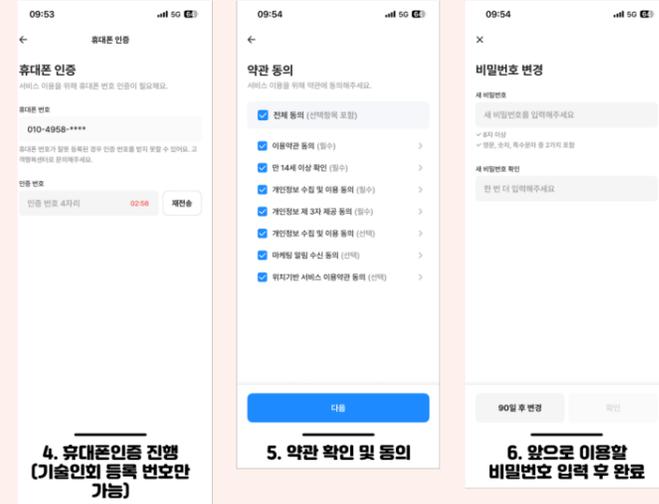
휴대폰 사용 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여기어때' 어플 검색 후 다운로드 및 설치.

PC 이용 시 검색창에 '여기어때' 검색 후 접속.

정회원 등록 이메일로 발송된 임시비밀번호 확인 및 가입 링크 클릭.

※ 이미 여기어때 가입자 또는 이메일 미사용 회원 별도 문의 필요.

### 03. 휴대폰 본인인증 진행 / 약관 확인 및 동의 / 비밀번호 재설정 / 비즈니스 회원 시작



4. 휴대폰인증 진행 (기술인회 등록 번호만 가능)

5. 약관 확인 및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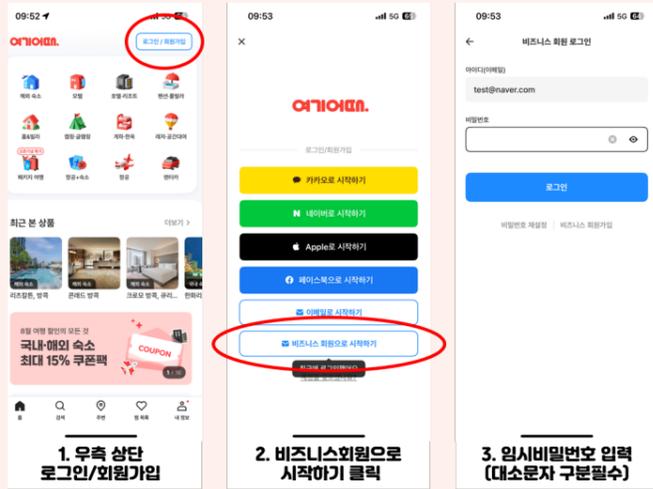
6. 앞으로 이용할 비밀번호 입력 후 완료

정회원 등록 시 입력한 휴대폰 연락처 인증 진행 및 약관 확인 후 동의.

앞으로 이용할 비밀번호 입력 후 가입.

여기어때 일반계정 아닌 (비즈니스 회원으로 시작하기)에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02. 여기어때 어플 접속 / 로그인·회원가입 클릭 / 비즈니스 회원 시작 / 임시비밀번호 입력



1. 우측 상단 로그인/회원가입

2. 비즈니스회원으로 시작하기 클릭

3. 임시비밀번호 입력 (대소문자 구분필수)

여기어때 어플 또는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의(로그인/회원가입) 클릭.

하단의 (비즈니스 회원으로 시작하기) 버튼 클릭.

정회원 등록 이메일로 발송된 임시비밀번호 입력.

- 기존 여기어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개별 문의 부탁드립니다.

- 본 혜택은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전용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어때 어플 다운로드

여기어때 홈페이지 가기



# "반드시 지켜주세요" 건전한 산림사업체 운영



최근 일부 사업체에서 자격증 대여등을 통한 부실 운영 사례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 기준을 안내드리오니, 업무 수행 시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인력 관리

### 01

산림사업체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은 반드시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 근무 기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 ~ 18:00**이며, 근무시간에 대한 예외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02

비상근, 비상주 등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거나, 파트타임 등 통상근무시간의 일부만 근무하는 경우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무실 요건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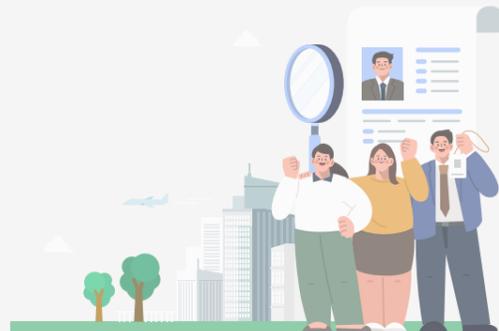
타 업체와 공유할 경우, 반드시 **공간이 명확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 02

산림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시설·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03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상시 사용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며, **소유·임차 등 사용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자본금 기준

### 01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

**법 인** : 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 : 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자산 입증 서류

건전한 산림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산림사업체와 기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수해 피해 지역 복구 자원봉사

- 경남 산청군 수해 복귀 지원에 나서 -

## 기록적인 폭우, 산청군 일원 큰 피해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경남 산청군 일대는 산사태와 도로 토사, 가옥 침수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마을 진입로가 끊기고 유실된 토사로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등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었다.

## 협회 회원들, 발 빠른 복구 동참

이러한 상황 속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회원 10명은 굴착기와 운반트럭 등 장비 8대를 투입해 긴급 복구 지원에 나섰다. 이들은 주택 및 도로 토사를 제거하고, 마을 진입로를 정비했으며, 산림 주변 유실 토사와 쓰레기를 치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1, 2, 3 수해 복구 지역 장비 활동 모습.



4, 5, 6 수해 복구 지역 장비 활동 모습.

## 한국원목생산업협회 수해 복구 진행 과정

### 주택 및 도로 주변의 토사 제거

침수로 인해 주택과 도로에 쌓인 흙과 토사를 신속히 치워 주민들의 이동과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마을 진입로 복구 및 긴급 배수 작업

물이 고여 차량과 사람의 출입이 어려운 마을 진입로를 우선 복구하고,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배수 작업을 실시했다.



### 산림 주변 유실 토사 정비 및 수목 쓰러짐 정리

산림에서 흘러내린 흙더미와 유실 토사를 정리하고, 폭우로 쓰러진 나무를 치워 2차 피해를 예방했다.





7 산청지역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참여한 한국원목생산협회 회원들.

### "산림 기반 공동체 회복 앞장설 것"

한국원목생산협회 서동은 회장은 "앞으로도 전국 회원들의 자발적 봉사를 통해 산림 기반 공동체의 회복력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8 수해 복구 지역 장비 활동 모습.



### 가을철 **산불** 조심

# 산불예방 안전수칙 우리모두 실천해요



###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 빠른신고

산불 발견 시 119, 산림청에 신고하기



#### 초기 진화

초기 산불은 나뭇가지 등으로 두드리거나 외투, 흙을 덮어 진화하기



#### 신속 대피

산불 반대 방향으로 벗어나 낮은 장소로 대피



#### 침착 대응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리기

### 산불 예방 수칙



담배꽂초 투척



쓰레기 불법 소각



화기 사용 금지



취사금지구역 엄수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사진 1 = 맹그로브 숲 입구 전경

“새로운 숲을 만나다” 시리즈

## 필리핀 팔라완섬 사방비치 해안림

글·사진\_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배상원 원장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북서쪽으로 5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섬 팔라완은 117만 ha로 숲이 섬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해발 2,085m의 마탈린가한 산이 있어 열대해안림, 열대우림, 산악림까지 해발고에 따라 다양한 숲들이 있으며, 해안에는 6만ha의 맹그로브숲이 자리 잡고 있다. 다양한 산림생태계와 석회암 지형을 보여주는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 (Puerto Princesa Subterranean)이 1971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국립공원 해안지역의 사방비치(Sabangbeach)에 맹그로브 숲이 있다.

맹그로브숲은 사방강(Sabangriver) 강변을 따라 내륙 쪽으로 길게 잡고 있는데 맹그로브숲으로 가는 입구 지역은 야자나무가 심어져 있다. 이곳을 지나면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부터 맹그로브숲이 시작된다. 강 양안으로는 모래사장이 없이 키 작은 나무 초록 색 나무들이 뾰뾰이 자라고 있고 가지와 잎이 수면으로 늘어서 자라고 있다. 수면과 줄기 사이를 자세히 보면 맹그로브숲을 주로 이루고 있는 화살 모양의 홍수속(Rhizophora) 나무로 나무들의 키는 6~7m정도이고 이곳에 자라는 주요 맹그로브 수종은 Rhizophora apiculata이고 이외에도 Bruguiera, Sonneratia 등이 같이 자라고 있다.

배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면 강폭은 조금씩 좁아지는데 주변 나무들은 커지기 시작하고, 줄기 아래에서 화살처럼 흰 뿌리가 수면 위 1m 이상 높이로 자라고 있는 모양은 마치 종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 나무의 굵기가 한 아름에 가깝고 하늘을 찌를 듯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 이 숲의 나이가 많은 것을 짐작케 한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수면이 낮아지고 나무줄기나 뿌리의 위쪽에 물에 젖은 흔적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 밀물과 썰물의 영향인 것 때문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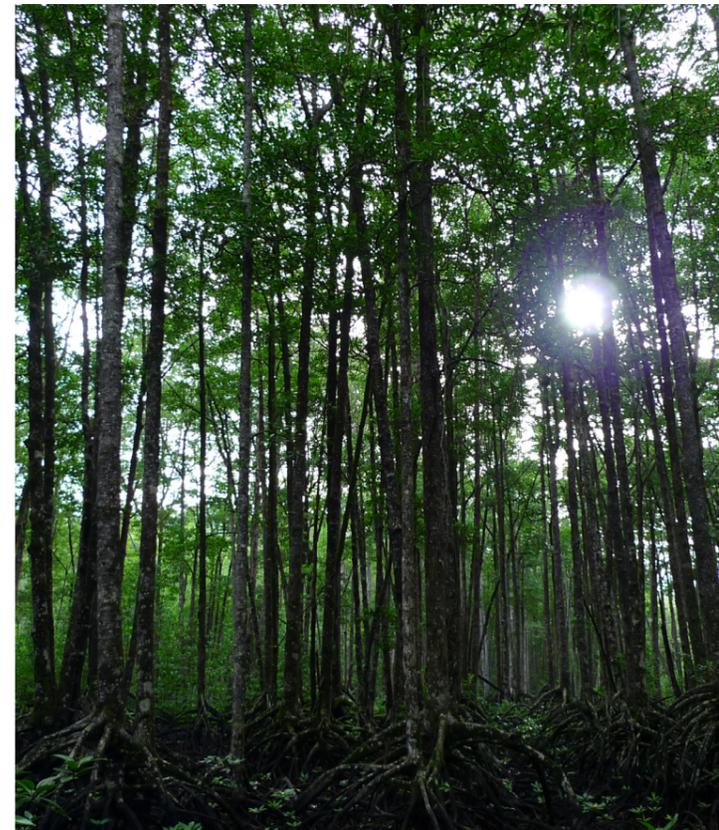


사진 2 = 맹그로브 숲 Rhizophora 뿌리

사진 3 = 맹그로브 숲 내부 전경



자라는 맹그로브 뱀 (Boiga dendrophila multicincta)

짙은 갈색의 뿌리들 사이 땅 위로 새파란 잎의 조그마한 Rhizophora 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이 어린 나무는 화살처럼 생긴 종자가 떨어지면서 땅에 박혀 자연적으로 생긴 것들이다. 작은 뿌리들 위에 서있는 큰 나무의 뿌리가 마치 뿌리들이 2층으로 서있는 것처럼 보인다. 강 쪽으로 기울어져 자라는 나무들은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 서인지 강 쪽으로 뿌리를 더 많이 뻗으며 자라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큰 나무들의 나이는 백년은 된 것처럼 여겨진다. 맹그로브 나무에서 노란 얼룩이 있는 가지처럼 보이는 것은 가지가 아닌 맹그로브 뱀(Boiga dendrophila multicincta)으로 맹그로브숲의 가지에서 자라는 특산종이다.

맹그로브숲을 지나 해안으로 가면 사방비치가 나타나는데 초승달 모양의 백사장, 해안림 그리고 암벽지대가 있다. 해안은 수영이 금지된 출입제한 지역으로 해변 백사장의 폭이 넓은 곳은 해안림이 하얀 백사장 뒤쪽으로 초록띠를 이루고 있는 반면 폭이 좁은 곳은 나무들이 바로 바닷물 옆에 자라고 있고 가지가 해수면 위로 자라 있다. 해변에 가장 많은 나무는 기다란 수술 끝이 연한 분홍색이고 깃털이 달린 공처럼 생긴 꽃을 달고 있는 바다독나무(Barringtonia asiatica)와 둥근 종자를 달고 있는 용화수(Calophyllum inophyllum)다.

사진 5 = 해변 백사장 전경





사진 6 = 바다독나무 Barringtonia asiatica 꽃

바다독나무는 열매가 독성이 있어 고기잡이에 이용을 하였기 때문에 Fish Poison Tree라고도 불리며, 바닷가에 떨어진 종자는 바닷물에 의해 다른 해변으로 운반이 되어 발아해 수고 40~50cm 정도의 어린 나무들이 해변에 줄을 지어 자란다. 모래밭에 가로로 누워 자라는 굽기가 1m가 넘는 나무의 줄기에 고사리류가 자라고 있는 모습은 마치 계곡에 자라는 나무를 보는 것 같다. 해변 백사장의 모래는 색깔과 크기가 균일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모양을 자세히 보면 조개껍질과 산호로 이루어진 것이 많다.

백사장을 뒤로하고 해안림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열대 수종들이 자라고 있는데 나무가 20m 이상 높이 자라고 줄기에 초록 이끼가 자라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여기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굽지는 않지만 다양한 수종들이 같이 자라고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것들은 쇠처럼 무거워 물에 가라앉는 아이언우드(Ironwood)와 거목으로 자라는 알스토니아(Alstonia), 마그니페라(Magnifera) 등이 있다. 해안의 가파른 절벽에는 건조한 지역에 적응을 하여 자라는 키 작은 Pandanus 종류가 자라고 있고 절벽 위의 완만한 평지에는 키가 30m 이상 되는 Dipterocarpus, Ficus 등이 하늘 높이 자라고 있다.



사진 7 = 해변에 자라는 Barringtonia asiatica 나무

사방비치의 맹그로브숲과 해안림은 자연 그대로의 숲으로 다양한 생태계와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간직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나이가 많고 키가 큰 맹그로브숲과 강가의 숲처럼 가지가 물 위로 자라고 있는 해안림과 절벽에 자라는 해안림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고 바다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사진 8 = 해안림 전경  
사진 9 = 해안절벽과 바닷물



##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기고

# “자존심 대결”



“산속에는 나무와 바람 소리, 은은한 향기 그리고 오직 한가지 생각뿐이다”

글\_한국산림기술인회 이태익 정회원



오늘 아침에 장비를 챙기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참을 나누며 소란이 일었다. 나는 어제 빵이 하나 모자란 것 때문이려니 짐작하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어제 오전이었다. 우리 팀의 기름돌이 우환이 비명을 질렀다. 오전 참 시간이 되어서 팀원들에게 빵을 나누어주는데 하나가 모자랐던 것이다.

참을 챙기는 것은 자기 일이니 자기 몫이 하나 사라져버린 것이다. 우환은 건너편 봉우리로 빵을 가지러 가려 했다. 내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갔을 것이다. 구름이라도 타고, 소란은 곧 끝났다. P 사장이 내게 걸어왔다.

**“소장님, 오늘 우리 팀에 두 명이나 빠지는데 한 사람만 지원해줄 수 없겠소?”**

나에게 일감을 주는 사장의 부탁인데 어찌랴. 나는 기름돌이 우환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기름돌이는 있으면 편하지만 없어도 크게 지장은 없었다. P 사장이 말했다.

**“다른 사람은 안되고?”**

우환이라는 말에 고마운 것이 아니라 못마땅한 표정이 P 사장의 얼굴을 잠깐 스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재선충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은 두 개의 봉우리가 당나귀 귀처럼 솟아있었다. 두 봉우리 사이는 깊은 계곡으로 갈라져서 아침에 산 아래서 헤어지면 서로 얼굴 한번 볼 수 없었다.

동쪽 봉우리는 우리 팀이, 서쪽은 P 사장이 직접 작업하였다. 우리는 매일 아침 산 아래서 그러니까 당나귀 이마 쯤 되는 곳에서 참으로 지급되는 빵을 챙겨 각자의 봉우리로 올라갔다. P 사장은 자기 아들의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하여 한 사람당 두 개씩 지급했다.

**“한국에서는 제일 고급 참일 것이다.”**

아침에 빵을 나눌 때마다 P 사장이 하는 말이었다.

높은 산의 기후는 예측불허다. 점심시간이 되어갈 즈음이었다. 아침에 좋던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며 소나기가 쏟아졌다. 상수리와 떡갈 나뭇잎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요란하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조금 전까지 없던 구름이 배가 고파 몰려왔는지 까맣게 덮고 있다.

산속은 순식간에 점심시간이 아니라 저녁시간이 되어버렸다. 금방 갈 것 같지 않았다. 비가 그친다 해도 미끄러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현장을 정리하고 내려가려던 그때 전화가 울렸다. 우환이었다.

**“소장님, 폭대기에서부터 잘라놓은 감염목을 모으고 있었는데, 비가 와서 둘러보니 나만 놔두고 모두 내려 가버렸어요.”**

우환의 눈물이 빗물과 함께 전화기를 타고 내렸다. 나는 짜증을 꿀꺽 삼킨 후 그에게 말했다.

**“산길샘 앱에서 네가 있는 곳 좌표를 찍어서 내게 보내라.”**

나는 팀원들에게 장비를 챙겨서 내려가라고 지시한 후, 우환을 데리러 건너편 봉우리를 향해 차를 몰았다. 상수리 나뭇잎 위에서 잘게 부서진 빗방울은 바람에 날려 춤을 추듯 숲 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내 머릿속에는 의아한 생각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의 울음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귓전을 맴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화를 냈을 것이다. 우환은 달랐다. 마흔이 훌쩍 넘은 남자가 통곡을 하는 것이 의아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깃 빵 하나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도대체 P 사장은 왜 그랬을까? 점잖은 사람인데. 무엇보다 나는 왜 지금에서야 이런 의문들이 떠올랐을까? 내가 임도가 끝나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우환은 타포린을 덮어쓰고 쪼그리고 있었다.

감염목을 훈증할 때 씌우는 비닐을 덮어쓴 자신이 마치 재선충에 감염이라도 된 것인 양 나를 보고도 그는 꼼짝하지 않았다. 나는 차에서 내려 우산을 쓰고 그에게 걸어갔다. 조금 전보다 비바람도 거세졌지만, 그의 울음소리는 훨씬 더 서러워졌다. 나는 그의 곁에서 울음이 먼저 그칠까 소나기가 먼저 그칠까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울음을 걷어내며 말했다.

**“오늘 아침에, P 사장에게 어제 빵 개수가 안 맞았다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성을 버럭 내면서 자기가 직접 세어서 나눠주었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랬다고 사람을 이 빗속에 버리고 가버린다는 말이야?”**

**“사실은, 나도 성이 나서 한마디 했거든요. 제과점에서 안 팔리는 빵을 우리가 사 먹는 거라고.”**

그랬구나! P 사장이 자기 아들을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환은 몰랐다. P 사장의 자존심(自尊心)은 아들자(子)를 쓴다. 子尊心.

타포린을 벗기고 우환에게 우산을 씌워 차로 데려갔다. 우리가 차로 돌아가는 동안 여기저기 베어놓고 쌓지 않은 감염목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갑자기 쏟아진 비에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나는 우산을 걸었다.

**“우환아! 우리 기분전환 좀 해볼까?”**

우리는 훈증을 하기 위하여 1m 길이로 잘라둔 감염목을 계곡 아래로 던지기 시작했다. 눈에 띄는 것은 한 토막도 남김없이 모조리 던져 내렸다. 계곡을 내려가서 건져 올리려면 힘깨나 써야 할 것이다. 유치한 복수를 끝내고 우리는 마주 보고 웃었다. 웃은 비와 땀으로, 마음은 통쾌한 기분으로 폭 젖어버렸다.

내려오는 차 안에서 내가 물었다.

**“빵이 그렇게 맛있나?”**

우환이 대답했다.

**“애들이 빵을 좋아해서요. 큰 애는 열 살, 밑에는 여덟 살인데 내가 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려요.”**

**“애들 엄마는 뭐 하시나?”**

**“작은 애 놓고 얼마 안 돼 도망갔어요.”**

우환을 데리러 올라갈 때 품었던 의문은 풀렸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착잡했다. 우환은 산속에 홀로 남겨진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힘겨운 운명이 서러워 울었던 것이다. P 사장이 아니라 운명의 여신이 자기를 버리더라도 한 것처럼.

P 사장과 싸운 것은 빵 때문이 아니라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들 눈빛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눈빛은 우환의 삶을 지탱해주는 희망의 등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절망적인 속박이기도 했다.

산에서 일하면 몸은 고되나 마음은 편하다. 인간이 만들어낸 온갖 물건들, 욕망을 불러내는 자동차, 높은 아파트, 예쁜 옷 그리고 맛있는 식당이 산속에는 없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간관계도 벗어날 수 있다. 산속에는 나무와 바람 소리, 은은한 향기 그리고 오직 한가지 생각뿐이다. 가족. 오늘 두 사람이 다툰 것이 그 증거다.

우환은 복수를 같이해준 것이 고마웠던지 나에게 애들 엄마가 집을 나간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오늘 우환을 데리러 가지 않았더라면 듣지 못했을 이야기였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P 사장이 떠올랐다. 만약 P 사장이 우환의 개인사를 알았다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가슴속에서 열정이 모두 빠져나가고 빈자리에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혼란만 가득 찬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만 들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모두 당나귀 귀처럼 생긴 높다란 봉우리 위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옆 봉우리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구름을 타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귀만 살짝 기울이면 되는 것이 아닐까?

빗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와이프 사이로 멀리 제과점 불빛이 보였다. 나는 제과점 앞에 차를 세웠다. 그와는 지금까지 낯선 이야기 외에는 하지 않았던 나의 잘못을 댕으로라도 사죄하고 싶었다.

# “새로운 공간, 더 큰 도약으로”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기념 케이크 커팅식 및 현판 제막식 등

한국산림기술인회는 8월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1 = 사무실 확장 이전식 기념 케이크  
사진 2 = 사무실 확장 이전식 참석자 기념촬영



1



2



3



사진 3 = 사무실 확장 이전식 기념 케이크 커팅식  
사진 4 = 한국산림기술인회 인사위원 위촉식

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인사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해 새롭게 선임된 인사위원들과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공간에서 시작하는 이번 이전이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일시 2025. 8. 21.(목) 14:00

장소 한국산림기술인회 강의실



5

##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일시 2025. 8. 21.(목) 14:00

장소 한국산림기술인회 강의실



6

##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

일시 2025. 8. 21.(목) 14:00

장소 한국산림기술인회 강의실



7

기술인회는 이번 이전을 계기로 산림기술 교육 및 회원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영문 회장은 “이번 사무실 확장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더 큰 성장을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보다 나은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5 = 한국산림기술인회 진영문 회장 환영사  
사진 6 = 한국산림기술인회 마상규 자문단장 축사  
사진 7 = 전국국유림영리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보도자료

#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 "서비스 품질 높인다"

- 8월 13일 아너스빌 이전 ... 민원·교육 서비스 환경 개선 -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진영문)가 오는 13일 아너스빌 2층(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한다.

이번 이전은 단순한 사무 공간 이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민원·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개선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넓고 쾌적한 공간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업무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민원 대응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이전하는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의 교육장은 최신 장비를 갖춘 넓은 공간으로 재구성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기술 교육 운영이 가능해졌다.

새롭게 이전하는 사무실은 대전 시청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교육 운영과 민원 응대에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당일인 8월 13일은 전산·통신 장비 이전 작업으로 민원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지만,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 및 자격증 신청 등 온라인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다.

8월 14일부터는 모든 민원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며,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00~13:00 제외)다.

진영문 회장은 "내부 업무 효율을 높이고, 회원 중심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산림기술 환경에 발맞춰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이전 안내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더 나은 산림기술 교육 및 회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사무실 방문 시 착오 없으시도록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주소** 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층(한국산림기술인회)

## 이전 위치도



# 사진으로 보는 한국산림기술인회 뉴스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News



제2기 녹지조경전문과정 운영



진영문 회장, 덕원기술상 수상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산림작업 안전교육



영남 산불 관련 기자 간담회 참석



제19회 전국기술사대회 참석



제15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인제군청)



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 참석



제4기 기본교육과정 운영



산림기술단체 공동대응 긴급 간담회



제3기 경영+공학 통합과정 운영



한국작산협회 창립총회 기념식 참석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 무료 법률상담 제공

### 카카오톡 오픈채팅 상담

오픈채팅 QR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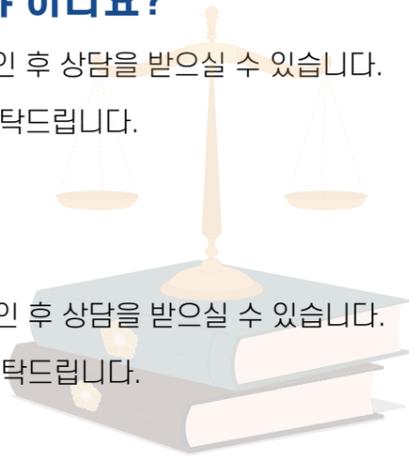
직업병 / 산재 / 법률 문제 등

#### ?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무법인 이산을 통해 사전 상담을 신청하고, 정회원 확인 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임료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어떤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노무법인 이산을 통해 사전 상담을 신청하고, 정회원 확인 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임료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노무법인 이산**  
무료 법률상담 문의 : 1599-5475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관련 문의 : 1533-5160(4~5번)



# 산림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이 함께 찾는 해답

## 아이디어 공모전



**주제**  
산림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산림 전 분야의 산림과학기술 아이디어

**접수 기간**  
2025.8.18(월) - 9.21(일)

**자격** 국민 누구나 **개인**으로 참여 가능

**신청 방법**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forestrnd@kofpi.or.kr  
제출 : ① 공모전 참가 신청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③ 공모 제안서, 그 밖의 첨부 자료

**심사 방법**  
1차 전문가 심사 90% + 2차 대국민 투표 10%

**시상 내역**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100만원	50만원	30만원

한국임업진흥원장상

**일정**

공고 및 접수	1차 전문가 심사	2차 대국민 투표	시상식
8.18(월)~9.21(일)	9.25(목)~10.1(수)	10.22(수)~10.31(금)	11.21(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R&D 기획실 042-719-1403 | forestrnd@kofpi.or.kr

구인·구직이 필요하다면?

# 산림기술자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구인 정보 등록하고 확인하세요!

한국산림기술인회 업체 정회원이라면 홈페이지  
산림기술자 채용정보 게시판에 구인 정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 정회원도 채용정보 게시판 이용이 가능하며,  
구직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1 홈페이지 업체 로그인
- 2 채용정보 등록(사용자)
- 3 확인 및 승인(관리자)
- 4 게시판 게시 완료

※ 본 게시판은 구인자가 직접 게시글을 등록하며,  
한국산림기술인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소식지

# 산림 관련 사진과 사연을 모집합니다!

상시접수

“ 산림과 관련된 사진이나 사연을 보내주세요. 정회원 여러분의 간직한 이야기와 추억을 매달 발행되는 한국산림기술인회 소식지 ‘산림기술 ON’에 실어드립니다. ”

### 참여대상

2025년 회비를 납부한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 유의사항

이메일 발송 시 보내시는 분의 기본사항(이름, 연락처, 주소)을 반드시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며, 발송 일자와 원고 게시 시점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모집내용

산림과 관련된 사연 및 사진

### 참여혜택

사진 및 사연이 채택된 회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참여방법

이메일(tkfea4321@naver.com)제출

※ 원고 분량 A4 1~3장 이내, 사진 해상도 최소 2500px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Vol.26

---

# 산림기술 소식 N

---

2025년 7+8월호

한국산림기술인회 소식지